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날 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 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아프리카 도시 사역에 달은 켈러의 선물 우간다 캄팔라에서 그를 회고하며

TGC 아프리카는 '연합'의 힘을 믿는다. 하나 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대륙 전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과 운동을 찾아 그것을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교회에 관해서 바울이 가장 애용한 비유의 하나가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체를 포함하는 몸의 비유였다. 아프리카 전역의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 어떤 조직도 모든 걸 혼자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조직이 빛나도록 돕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City to City Africa는 도시 복음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회 개척자와 사역 지도자가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에 상환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다.

2021년과 2022년에 나는 몇몇 다른 도시 지도자들과 티모시 켈러의 저작에 관한 토론회를 포함한 멘토십 회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남반구 출신으로 도시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 켈러는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예레미야 29:7에 나오는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켈러는 도시에 도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문화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도시에서 도망가지 말고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도시에서 복음으

로 형성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역과 더불어서 신앙과 일을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유익을 위해 근본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그의 백성이 도시 사역에 참여하도록 지금도 부르신다.

나는 팀 켈러가 설립한 Redeemer City to City의 지회인 City to City Africa를 통해 그의 문서와 교육을 접했다. 상황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고 도시 전역의 복음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사역으로서 City to City Africa는 도시 복음 운동을 지원한다. 켈러의 태도와 신학적 내용은 City to City Africa가 도시를 위해 함께 일할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동원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목회자로 봉사하던 나는 우리 지역 교회가 캄팔라의 다른 지역에 개척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City to City Africa에 참여했다. 그 당시 나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해

야 캄팔라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였다. 다른 많은 주요 아프리카 도시와 마찬가지로 캄팔라도 점점 더 민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젊은 이는 특히 높은 범죄율, 실업률, 그리고 빈곤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시골과 도시 환경을 가리지 않고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확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복음과 복음의 파장이 바로 이 순간의 역사를 드러내는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 그리고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3면으로 계속)



생산성에 집착하는 우리

"중요한 일을 하라!" 지난 십 년 동안에 나온 수많은 생산성 관련 책이 외치는 구호이다. 효율성 추구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Deep Work(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How to Have a Good Day 같은 책은 인생 사명 선언문 작성, 단일 작업, 집중 작업을 위한 시간 떼어내기, 작업의 일괄 처리 등을 제안한다. 거기에 폭 빠져 있었던 사람이 나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생산성 문헌의 도움으로 나는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 더불어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브라질에서 주짓수 블랙 벨트를 획득했고, 비영리 단체에 가입하고, 목회자 인턴십을 마치고, 두 교회에서 이종직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다.

애초에 개인적인 효율성이 향

상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책에서 배운 규율을 매일 연습한다. 그러나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서 문제점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계 전반에서 생산성 집착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경고 사인

"시간은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최대한 활용해야 해." 친구 목사에게 자신만하게 선언하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날 그 친구는 마치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이라도 만난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 그게 다가 아닌데?" 그 친구의 대답이었다. "너 건강은 어때? 가족은? 믿음과 성경 지식은 문제 없어?"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혜근 목사



목회와 선교 여병현 목사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석유가 나온다?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근자에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은 어떤 차량을 선호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지도자라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생각하여 차량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건강한 생각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대한민국 동해안의 석유시추 이야기가 갑자기 여론의 중심에 나타났습니다.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0%를 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들은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산업공사라는 위장회사를 건립하여 포항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하게 합니다. 1975년 3월에 3지점에서 시추를 시작하여 파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포기하려던 1975년 12월 3일 새벽, 지하 1,400m까지 파 내려간 곳에서 시꺼먼 액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온 검은 액체를 다 모아보니 대략 한 드럼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액체를 담아 청와대에 가져갔고 정부 각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맛까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기름이 나온 곳 주변에 몇 곳을 더 선정하여 파 보았지만, 더 이상의 기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드럼 정도 올라온 이 기름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조사하여 언론에 보도한 조OO 기자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지 벌써 5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석유시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번 동해에서의 물리탐사 결과 최대 140억 배럴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흥분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75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으로 바로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지구 대기에 열을 가두게 되는 온실효과를 만들고 그 결과로 지구 온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줄여야 하며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즉 더 이상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정책을 정하고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7배 이상을 배출할 수 있는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추를 시작해도 2035년이 되어야 상업적으로 채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지구촌의 자연재해가 지구온난화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선진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의 수요량이 2050년이 되면 2022년보다 약 75% 정도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와 가스의 가격도 하락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산유국'에 대한 그리움과 부러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새롭게 나타난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과학과 세계의 흐름을 무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를 떠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를 당하는 지구촌의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야 할 바른 자리를 잡아가는 지혜롭고 책임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살롱.

hankschoi@gmail.com

바흐의 음악,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고전적인 논증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적지 않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우주론적 논증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첫 번째 원인(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복잡성과 질서를 볼 때 지능이 있는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적론적 주장도 있다. 그리고 C. S. 루이스가 대중에 널리 퍼뜨린 것이 있는데, 인간 사회에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반드시 도덕적 입법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증 책임을 믿는 주체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호소하는, 달리 말해서 미학에 대한 호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운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실재하고 주관성을 초월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의 본능을 왜 부정해야 하는가?

다는 주장을 향한 질책이다. 그런 경험은 때때로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람의 속삭임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뭔가 더 있다.

매트 캡스는 곧 출간될 Draw by Beauty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미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풍성함은 경시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바흐 논증

더하여 또 하나 유심히 볼 만한 주장이 있다.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의 설명이다.

-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이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당신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거나 아니면

아름다움과 음악

창조 질서 안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아름다움, 즉 은혜의 선물

안 보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은 바흐의 음악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존재 증거로서의 아름다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 주장의 핵심은 누구나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초월적이고 권위 있고 자기 타당성의 증거로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아름다움(여기서는 바흐의 음악이 해당한다) 앞에서 우리는 압도된다. 아름다움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 당신은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름다움을 놓고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나아가서 그 속에 자신을 내어줄 뿐이다. 크리프트는 말한다. "아름다움에 관해서 우리의 감각 경험은 믿어야 할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철학적 사례는

아름다움의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음악에서 찾는다. 음악은 멜로디, 화성, 리듬 등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음악의 본질,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를 결코 포착할 수 없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단지 뇌의 화학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음악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악보 위 음계 이상의 뭔가가 있다. 위대한 예술 작품에서 우리는 초월적 영역의 가장자리에 닿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최고의 창조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어딘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 형식과 마찬가지로 음악은 자연에서 만나는 아름다움과 유사하다. 이러한 미학적 경험은 마치 세속 주의의 보도에 생기는 균열과 비슷하다. 그 틈새로 풀잎이 돋아나고 가끔은 꽃이 피기도 한다. 그런 경험은 내재성의 천장에 생기는 작은 구멍이자 물질계 너머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있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아름다움, 즉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캡스는 서른 개의 변주곡으로 개발된 간단한 코드 진행이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점점 더 풍성한 소리를 내는 바흐의 'Goldberg 변주곡'을 언급하는 제레미 베그비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바흐 작품의 천재성은 한 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모든 '변주'가 다 끝난 후에 아리아의 시작 부분이 다시 연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흐가 작품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특별한 것에 대한 기억을 떠나서"라는 끝부분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아리아를 단순히 이전에 들었던 것의 복제로서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 곡처럼 듣는다. 다양성으로 가득한 작품으로 듣는다. 거기에는 풍부함, 매우 다양한 분위기와 색상이 다 모여있다. 말하자면, 바흐는 우리가 실제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도록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a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4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 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이런 교회가 됩시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병원으로 설명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휴게소로 설명합니다. 여행할 때 휴게소에 들러서 자동차 휘발유를 넣고, 화장실에 가고 밥도 먹고, 잠시 쉼을 얻듯이, 한 주간 분주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 들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유람선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싼 배삯을 낸 유람선 승객처럼 여깁니다. 교회에 현금까지 냈기에 교회가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 줄 것을 기대합니다. 수시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취향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타고 있는 유람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

다.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병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얻은 후에 다시 떠나는 휴게소, 혹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한가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유가 교회의 역할을 잘 설명할까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처럼, 죄와 죽음의 강물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구조선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구조선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전시에 비행기를 적지로 보내어 전투를

합니다. 전사가 아니어도 국가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긴장합니다. 늘 깨어서 가상의 전투로 군인들을 훈련하고 전략을 준비합니다. 또한 항공모함인 교회는 함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이 항공모함의 조종사처럼,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학교란 적지, 일터란 적지, 세상이란 적지에서 매 순간 영적 전투를 수행합니다. 작전 수행을 마치면 다시 영적인 항공모함인 교회로 돌아와 영적인 충전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구조

선이 되어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란 주제로 '한인세계선교대회'(KWMC)가 열립니다. 해외 선교사들, 선교사 자녀들, 북미 디아스포라 교회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약 1,500명이 모이는 단일 선교로는 최대 규모 컨퍼런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선교 전략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집니다.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뉴욕심포니교회)



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콘체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로는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이 협주곡은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한 명의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독주를 하는 것입니다. 즉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면 피아노 한 사람이 독주를 하고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하면 바이올린 한 사람이 독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것이지요. 이 협주곡에서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독주자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반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자신들의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 독주자 보다 더 크게 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연주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역할은 오직 독주자의 연주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연주가 되고 독주자와 함께 오케스트라도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찬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27-30)

았을 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

위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자기 위치를 모르면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대통령의 권세를 휘둘러다 낭패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진실한 친구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있거나 한결까요?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더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신랑의 친구의

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흥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쇠한다는 무엇입니까? 흥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쇠한다는 것은 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흥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흥함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흥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쇠하심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흥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쇠함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의와 자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는 것이 성도의 쇠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22-30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존귀해 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 라고 말한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장의 아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인가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니 세례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

시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1:33)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알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나는 그 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 내심을 받은 자” 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신랑의 친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 옆에서 신랑을 돕고 신랑을 빛나게 해 주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만큼은 아니지만 친구의 결혼을 자신의 일같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을 자기도 누린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함께 행복해 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친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친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생에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를 사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일 같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신랑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가졌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 안됩니다. 모든 문제는 주인공이 아닌 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면서 또한 주님의 신부를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친

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쇠함을 통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흥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흥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쇠함의 절정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서 우리도 또한 흥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쇠하여 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소망하고 자신은 쇠하여지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dongkshin@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LGBT Pride Month - 동성애 자랑의 달"이라는 이름이 적절한 4가지 이유

2015년 6월, 오바마 전 대통령 정권 아래, 미연방 대법원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인 결혼의 성경적 고유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LGBT 동성애 운동가들은 미국 대도시마다 '동성애 또는 게이 프라이드 동성애 자랑' 행진을 신속하게 조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동성애가 확실히 죄라고 구약, 신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문화에서 동성애만이 유일하게 널리 기념되고 용납되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둑질하는 프라이드", 또는 "부모를 모독하는 프라이드", "탐욕과 사기를 자랑하는 프라이드" "거짓말 잘하는 걸 자랑" 하는 행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스럽고 잘못된 죄를 동성애자들처럼 대놓고 "자랑"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LGBT Pride Month 자랑의 달" 행진을 하며 온 세상에 죄를 자랑하는 유일한 죄가 바로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이 매우 문란한 성적 생활을 하고, 그런 문란함으로 발생된 성병 때문이라도 적어도 20년은 일찍 죽을 수 있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공공연히 자랑할 뿐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의견을 갖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들을 "혐오자" 등등... 모든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성애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성애자들이 할리우드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방탕한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6월마다 한 달 내내 대낮에 드러내놓고 그런 죄를 "Pride Month 자랑의 달"로 만들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동성애 운동가들과 지지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그런 행진들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오바마 이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요.

특별히, 동성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활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자로 끌어내리며 공격하는 전투적인 생활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죄를 포용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점에서 '동성애 프라이드'라는 단어는 어찌보면, 이런 동성애 운동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자랑" 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제이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탐욕 등 이 모든 죄는 다른 사람의 복지보다 개인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왜 "동성애 프라이드"가 동성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용어인지, 케빈 레이먼이라는 분이 쓴 글을 나눕니다.

1.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듭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고, 북쪽 먼 곳에 있는 집회 산에 앉으며, 구름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사 14:13, 14)

교만의 죄는 천사였던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빼앗아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분께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냐고 화를 내고, 모독합니다.

"게이 프라이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영혼 깊이는 알고 있어도 (로마서 1:26-32, 고린도전서 6:9-10),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옳고 정의롭고, 진정한 사랑이며, 행복하다"라고 거짓으로 주장할 때 이러한 "자랑"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이미 지금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2.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동성애의 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게이 프라이드"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한 예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를 포함한 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동성애를 지지하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고 수없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부도덕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로 인한 행위의 문제도 다루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지향과 그러한 지향이 성적인 죄를 포함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들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루셨습니다.

3.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합니다.

"게이 프라이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26, 27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에 반하는 관계로 바꾼" 여성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포기하고 서로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남성으로 묘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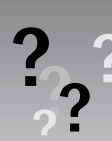
동성애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이나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코 승인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동성애 자랑의 달" 행사들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깝고 열광 부끄러운 일입니다.

4.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더 자세한 것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이번 주는 비극적인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남침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오렌지 카운티 엄집사가

6·25 전쟁 발발 원인

A: 1950년 6월 25일 비가 촉촉히 내리는 조용한 주일새벽,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은 새벽 4시를 기해 38선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한 후에 5년간 적화통일의 야망을 불태우며 전쟁준비를 끝낸 공산주의자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와 야전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이 남침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련과 중국이 남침을 허락하고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남침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는 1950년 3월에 소련에 가서 그 당시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고 중국에 가서는 주석이던 주은래 수상과 중국군 사령관 모택동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소위 중국 공산당 팔로군인 1만 5천명의 병력을 1949년부터 보내어 한국침략의 주력부대가 되도록 북한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전투기 200대 탱크 300대 야포 2,000문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허락해서 비극적인 전쟁이 나서 우리의 부모 형제 한국인이 6·25로 200만명이 사망했고 미군이 5만명이 죽었으며 가족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천만명이 넘습니다.

둘째, 에치스 라인 때문에 오판한 것입니다. 남한에서 1949년 미군이 철수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스 장관은 미국의 극동 방위 보호선을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 대마도를 경계선으로 삼아 필리핀과 연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필리핀을 보호하고 한국은 빠져 있었습니까. 비슷한 시기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회의는 1949년 12월 결의에서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 의견을 밝혔던 적이 있고 이처럼 그 당시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얻을 지정학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했고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의 개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겁 없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6·25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셋째,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감언이설입니다. 박헌영은 8·15해방후에 남한에 공산당 조선 노동당을 창설한 사람인데 그는 사람이 똑똑하고 상당히 조직과 선동에 뛰어난 정치적 천재로 총남예산 사람입니다. 그는 남한에 공산당 조선노동당을 창건하고 공산당원을 100만 이상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공산당 조선노동당을 유지하려다 보니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할 수 없이 위조지폐를 찍어 내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 박헌영 체포령을 내리자 그는 죽은 사람의 관에 들어가 북한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을 하고 외부부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면 남한 전국에서 자기가 조직한 남로당 출신 공산주의자 20만명이상이 전국적인 봉기를 해서 쉽게 남한을 무혈 적화 통일할 수 있다고 김일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감언이설의 말을 듣고 김일성은 6·25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김일성의 악한 도모가 허사로 돌아가게 하고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공산화의 위기에서 한국을 기적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은인입니다.

Header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with a compass and globe imag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천하장사로 불릴만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하였으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삿 14:5).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뛰어난 힘을 두려워하면서 삼손을 제 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이 가

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였었습니다. 들릴라를 통해 알아낸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아

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눈이 뽑히고 조공과 경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근본이라는 용어는 머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로 '레쉬트(ראשית)'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과 머리와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Lord'로 번역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

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적 차원에서의 경외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존중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경외한다는 것은 인격적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정리해보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소홀히 하면 매일 낭패를 당하여 기진맥진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지식이 그 힘을 대체할 수 없고, 경험한 노하우가 그 힘을 대체할 수 없고, 물질이 그 힘을 대체할 수가 없고, 특출한 은사가 그 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힘 빠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힘이 빠지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비하는 곧 우울한 감정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자기 비하와 우울한 감정에 젖어드는 배후를 추적해 가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의 시간이 소홀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하와 우울한 감정으로 인하여 힘이 빠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자신을 존중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하늘의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내전 일어날수도”...총선 패색 짙어지자 마크롱 경고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내전의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방송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을 겨냥해 “범죄나 이민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국우파의 해결책은 낙인이나 분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종교나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은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을 주도하는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도 유사한 위험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 세력도 종교적 관점이나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관점으로 사람을 분류한다”며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힘들 때 극단에 투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해결책은 결코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내전’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Ifop 여론조사에선 RN 지지율이 36%, NFP가 29.5%로 1·2위를 차지했고 중도 연립 여당 앙상블은 20.5%에 그쳤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총선 1차 투표는 오는 30일, 결선투표는 다음 달 7일 실시된다.

덴마크, 세계 최초로 ‘농업 탄소세’ 부과... 감축 목표량의 70% 해결

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덴



마크 정부가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 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세금을 5년 뒤인 2035년부터 t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뉴질랜드는 이달 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는 농업분야 탄소세 부과로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180만 정도 감

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감축량은 그 해 덴마크 배출량 감축 목표의 70%에 해당한다. 덴마크 정부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북유럽 국가 중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덴마크 정부 자문기관은 농업 분야 감축이 없다면 2030년 덴마크 배출량의 46%를 농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덜란드는 농업분야 탄소세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 자연보호단체,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자문기관이 제시한 과제 모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서 교회·경찰 겨냥 동시다발 테러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교회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무장 괴한들이 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다게스탄 테르벤트 지역의 유대교 회당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괴한들은 회당 내 경찰과 보안요원 등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와 동시에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의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총격도 발생했다. 회당뿐 아니라 두 지역의 러시아정교회 성당과 마하치칼라의 교통경찰 초소도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이번 테러로 경찰 15명과 정교회 신부를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공화국 수반은 “나라 전체에 비극의 날”이라며 “경찰관 15명이 테러 공격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정교회는 테르벤트 정교회 성당의 니콜라이 코텔니코프 신부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당시 유대교 회당에 예배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대인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상자도 알려진 바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후 대테러 작전을 진행해 무장 괴한 중 6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 가담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멜리코프 수반은 “모든 세포 조직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즉각 나타나지 않았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다게스탄의 한 지역 책임자가 아들이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됐으며, 총격범들이 국제 테러 조직의 추종자들과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320만명인 다게스탄은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지역으로 분리주의 반군 테러가 적지 않은 곳이다.

러시아정교회 키릴 총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오순절에 공격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적이 우리 사회의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다게스탄에는 24일부터 3일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되고 모든 행사가 취소됐다.

美 Z세대, 주거비·빚 문제로 고통

미국의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물가 상승, 주거비 증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Z세대는 10년 전보다 주거비를 31% 더 지불하고, 의료보험 지출은 46%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 비용은 배 이상 늘었다”고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분석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증가분이 비용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밀레니얼 세대를 28~43세로, Z세대를 12~27세로 구분했다.

트랜스유니언 자료에 따르면 현재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젊었을 때보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 모든 종류의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Z세대 부채는 소득의 약 16%로 밀레니얼 세대가 10년 전 지녔던 부채(12%)보다 비중이 컸다.

WP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Z세대 7명 중 1명은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이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Z세대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여기는 젊은 유권자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평가했다.

미 CBS방송이 유거비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지난 17~24일 유권자 2460명 대상)에서도 30세 이하 응답자의 82%가 이전 세대보다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 76%는 가족 부양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네타나후 “헤즈볼라와 전면전 치를 준비했다”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23일 이스라엘 채널14방송의 ‘더 팩트리엇’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 도전도 맞이할 것이다. 전면전을 치를 수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상황에서 북쪽 국경에서 산발적으로 교전해온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네타나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멀리 후퇴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무력 공세를 피해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인 북부 주민 10만여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마스와 전쟁을 끝낸 뒤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군은 5개월 전 가자지구 통치에 현지 집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을 가져왔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네타나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인 정착’을 주장하는 자국 극우 진영의 제안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하마스가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도 이스라엘군이 북부 전선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헤즈볼라와 전쟁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인질 석방을 위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전쟁 목표 달성 전까지 하마스에서 요구되는 영구 휴전에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美에이태름스 크림반도 폭격에 러 “미군 개입” 발끈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태름스(ATACMS) 미사일로 공격하자 “미국이 개입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성명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을 겨냥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공습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치명적 범죄”라며 “린 트레이시 주러시아 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태름스를 지원한 미국은 키이우 정권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명한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미국산 무기는 인공위성 역량 등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사건의 배후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 평화롭던 러시아인이 미국의 개입으로 죽는다면 후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에이태름스 1기가 세바스토폴 상공에서 폭발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53명이 다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에이태름스 5기 중 4기를 대공 방어체제로 격추했지만 나머지 1기의 탄두가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에이태름스는 본체에서 작은 폭탄 수백발을 지상으로 흩뿌려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집중탄 형태의 무기다.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내는 집중탄은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미국은 지난달 자국산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우크라이나군에 허용했지만, 에이태름스에 대해선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가입은) 궁극적인 안전보장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나란히 EU 가입을 신청했다. 두 나라가 EU 회원국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I. 유신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

유신론적 진화론 비판

1)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진화론은 무작위성 (randomness)에 근거한다. 진화론은 새로운 종 (new species)이 출현하기 전에 발생해야 하는 수백만 개의 돌연변이 (mutations)가 목적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론이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이다.

모든 진화의 과정에는 변화와 새로운 종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은 무작위성이다. 유기체의 무작위 돌연변이 (the random mutation of organisms)가 없다면, 현대 과학적인 의미에서 진화는 있을 수 없다. 무작위 돌연변이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에서 가장 복잡한 생명체 형태로 최종 발전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새로운 유기체가 발달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지적 설계 (God's intelligent design)이다. (창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수백만 개의 무작위 돌연변이를 통하여 창조한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개념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며, 성경적 창조론과는 맞지 아니하는 이론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하나님이 진화

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의 근본은 진화론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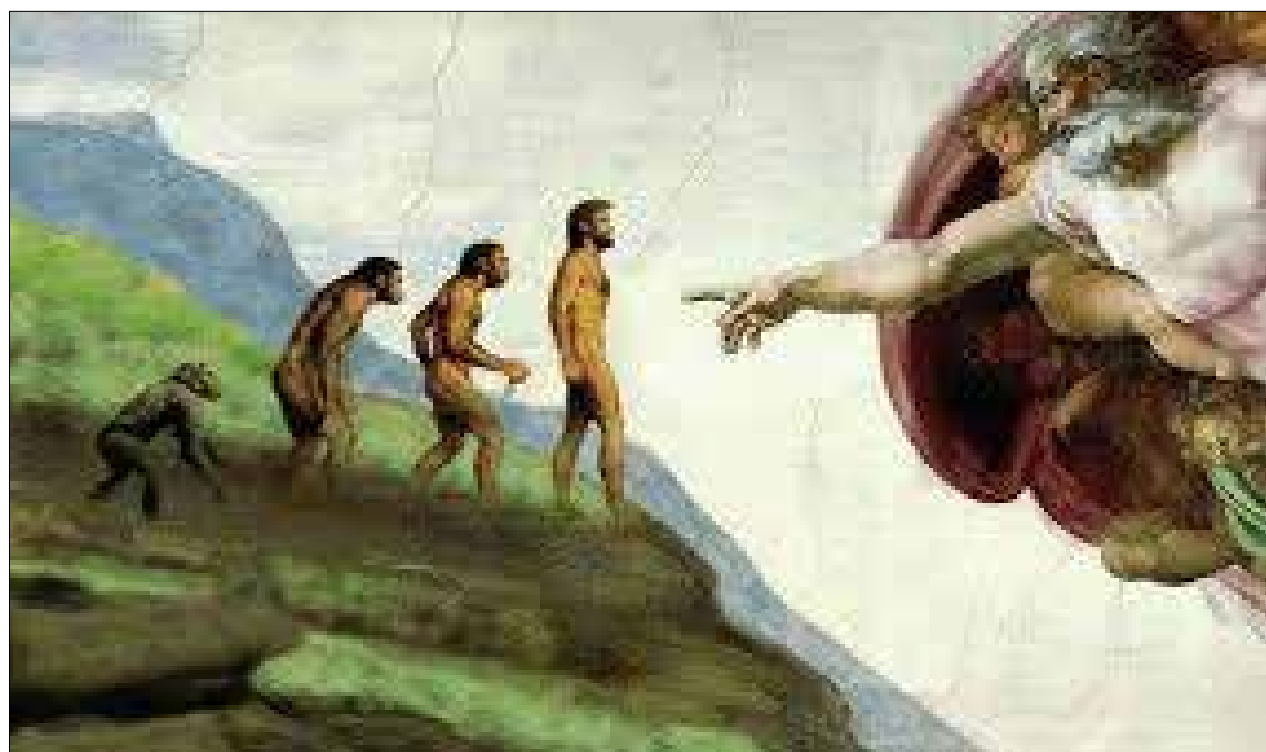
2)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때에 즉각적으로 창조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은 복잡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명체가 나타난

자 바로 "그대로 되니라." (창 1:11)

3)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이다.

여기에 진화론적인 사상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인간은 거의 동물에 가까운 생명체이다. 이것은 유인원 (ape-like creatures,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 영장류)으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니 견고히셨도다" (시 33:6, 9).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1).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백만 년 동안 생물이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에 창조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땅은 풀을 내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나 성경은 첫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순간부터 고도로 발달된 인격체이며, 언어적, 도덕적, 지적,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유인원으로부터 많은 진화를 통해 인간이 되게 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격체이며 지적, 정적, 의지적인 능력이 있다. 아담과 하와는 진화론이 말하는 최초

의 인간인, 유인원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2장의 아담과 하와가 문자적인 개인 (literal individuals)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마서 5:12-21과 고린도전서 15:21-22, 45-49에서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 인물로 분명히 말한다 (눅 3:38; 행 17:26; 고전 11:8-9; 고후 11:3; 딤후 2:13-14).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작위 (random)"의 다윈주의 이론과 유신론을 조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 창조론도 아니고, 일관된 진화론도 아니다.

VIII.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해방신학은 20세기 후반 로마 카톨릭에서 발생하여, 남미를 중심으로 한 종교 운동이다. 이들은 정치 및 시민 문제에 참여하여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신앙을 그들에게 적용하려고 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한 사회 경제적 구조 (so-

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10-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 기독교 단체인 기본 공동체 (base communities)를 설립했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교구민의 식량문제, 물, 하수처리, 전기등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다. 주로 평신도들이 이끄는 수많은 기본 공동체가 남미 전역에서 생겨났다.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발전하였다.

해방신학 운동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 (Medellin)에서 열린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the second Latin American Bishops' Conference)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확인했고, 이때 주요 저서인 <해방신학> (Theology of Liberation, 1971)이 페루 신부이자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Gustavo Gutiérrez)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운동의 다른 지도자로는 벨기에 태생의 브라질 신부 호세 콤블린 (José Comblin), 엘살바도르의 오스카르 로메로 (Óscar Romero) 대주교, 브라질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Leonardo Boff), 예수회 신학자 온소브리노 (Jon Sobrino), 브라질의 헬데르 카마라 (Helder Câmara) 대주교 등이 있다.

해방신학운동은 1970년대 남미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엘리트에 맞서 정치적 투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해방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Marxism) 전파자이며, 또한 좌파 사회 활동주의 옹호자로 (advocates of leftist social activism) 종종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통치하는 바티칸은 브라질과 남미의 다른 지역에서 보수적인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이 운동의 영향력을 억제했다.

존 프레임 교수는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성경의 특정한 주제의 결합" (combination of Marxist philosophy with certain biblical motif)이며, 그들은 기독교 신학 전체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축 (axis of the oppressor and the oppressed)을 통해 바라보며 재구성한다"했다.

해방신학은 경제적, 정치적 속박에서 다양한 집단(주로 가난한 사람, 흑인,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켰다. 해방신학자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며, 사회 구조를 뒤집기 위해 (overturning the structures of society) 투쟁해야 하며, 사회 운동, 심지어 혁명까지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방 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분석 도구" (analytical tool)로 채택하여 모든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근본적으로 수정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 청년예배: 오후 2:00 주요강연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lbfqusa@yahoo.com / www.lbfq.com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요 할고: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잠소-KDC, 킹덤드림센터): 오후 7:30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영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오후 7:30 일일할고: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thelhc.org / www.bh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런스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연맹관리교회협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결핍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562) 49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일일할고: 오전 9:15, 11:30 온라인세례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청년) 주일 할고: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주: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동요운송실(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2:0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세례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예수님의 마음(Heart of Jesus)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 1-3)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다투지 않으신 예수님 (Jesus Did Not Quarrel)

첫 번째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마 12:19) 예수님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악한 말을 지어내고, 꾀계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피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마 10:23)

어느 들판에 네 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늘 함께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거대한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렸으나 네 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힘에 부쳐왔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약간 뒤쳐져 풀을 뜯는 황소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너는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는 것 모르지!"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차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의 황소는 서로를 배신자라며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세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자는 황소를 공격해 네 번의 거대한 식사를 제공받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과 미움의 씨앗을 던져 서로를 미워하게 하여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탄은 가정 혹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던진 후 서로를 미워하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교회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사랑과 믿음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됩니다. 다투지 말

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닭 같은 집사, 싸움닭 같은 권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딤후 3:3), (딤후 2:24), (딤후 3:2) 바리새인들처럼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신 예수님 (Jesus Did Not Raise His Voice)

두 번째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마 12:19) 영어로 He will not quarrel or cry out 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레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소리 높이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막 5:5), (막 9:26)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은 한 밤중이나, 새벽이나,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예수 믿는 점잖은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들며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곁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마 12:18)라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막 3:12)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소리가 큼니다. 봉사하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특히 회의할 때 너무 목소리가 큼니다. 심지어 자신이 못 박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칭찬하든, 욕하고 비난하든, 화를 내거나 들레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들레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갈 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예수님 (Jesus Did Not Break the Bruised Reed)

세 번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마 12:20) 초로인생(初露人生)이란 말이 있습니다. 풀에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이 말도 역시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표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대는 이렇게 약하니 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상한 갈대를 흔히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꺾어 버리고 밟아 버리는 것이 보통이 아닐지 싶습니다. 상한 그릇은 내어버립니다. 병든 짐승은 혼자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매일 보도되는 우리의 사회 실정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적자생존이니, 자연도태니, 약육강식이니, 이런 말을 인류사회에까지 적용하게끔 된 세상입니다. 생존경쟁에 낙오한 자는 넘어집니다. 상합니다. 죽습니다. 어떤 때에는 감옥에서 씩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 많은 시간을 상한 갈대와 같은 병든 인생을 고쳐 주시는 데 쓰셨습니다. 몸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한센병자, 중풍 병자, 시각장애인, 손 마른 자, 청각장애인을 고쳐 주셨습니다.(마 4:23)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우는 자, 지친 자,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며,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막 2:17)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꺾어가는 심지를 고치지 않고, 상한 갈대를 회복하시고, 그 희미한 불을 돋우어서 큰 등대를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닦아 서로 사랑하여 어떤 일에도 다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을 닦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꺾어가는 심지를 고치지 아니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0) 선한 목자되신 주님

싱글들의 모임인 만큼 늦은 나이일지라도 새 가정을 꾸리는 멤버들이 종종 있는데, 한 커플이 되는 두 사람 두 우리 멤버인 경우도 있고, 한 멤버와 외부의 사람으로 묶여지기도 합니다. 재혼 후 아주 떠나거나, 떠나갔다 함께 참석할 수도 있고 그밖에 다시 혼자되어 돌아오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필을 찾으려 떠나야 된다는 법은 없으며 남고 싶어 할 때면 대환영인데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선배가 되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임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할 경우 충분히 이해하면서 모임에서 떠나보내곤 합니다.

배필을 찾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볼 때면 나이에 상관 없이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커플의 경우, 상대방의 성향이나 살아온 경험 등을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마치 길들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면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저 끈이 어찌구무없이 풀려버렸을 때 주위의 친구들, 자녀들, 특별히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며, '기대는 줄이고 이해는 늘려라'라는 어디선가에서 본 글에 대해 나눠볼까... 마음을 써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떠나가는 커플을 볼 때면 아들, 딸 분가시키는 마음이라고 할까, 머리로는 상황을 받아들이 준비가 됐지만, 감정적으로 떠나보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봅니다.

남겨진 빈자리를 묵묵히 보면서, 그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힘들어하며 배우자를 찾아온 것을 아는 만큼 두 사람의 아픔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함과 더불어, '이 모임을 시작하신 분께서 채우시겠다' 하던 중이었습니. 사별 후 우리 모임에 왔던 남자분과 참석자 중의 한 분의 소개로 혼자 진행되었던 커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 아내 되는 분은 몸이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이라 '괜찮을까?' 하였는데 혼인이 속히 진행되었고 지난 이 년간 멀리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참석하 후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다시 든 생각은 틀며 나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면 반가이 맞으며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챙겨드리고, 떠나야 된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니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14:1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그러면서도 고집스러운 양들이 우리를 잘 야기 하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구절입니다. 한부모 모임 인도자들에게서는, 떠나는 사람이나 모임에 계신 분들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에 맡겨진 삶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행복을 창조하는 힘

중국의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전투에 이겨 궁중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문무백관을 초대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며 왁자지껄 소란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더니 왕의 애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누가 그녀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왕의 애첩을 연모하던 신하의 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애첩이 신하의 갓끈을 잡아 뜯고는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갓끈이 없는 자를 잡아 주세요.” 불만 켜면 갓끈이 풀린 자가 바로 감히 왕의 애첩(愛姬)을 희롱한 자라는게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도리어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큰소리로 모두에게 갓끈을 떼어 던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불을 켜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장수가 갓끈을 떼면 뒤라 누가 그런 무엄한 짓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 3년 후 진(秦)나라와 전쟁이 벌어져 진나라에 패한 왕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자 신하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끝까지 왕의 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 왕을 구하고 그의 용기 덕분에 드디어 대승을 거두게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왕(蔣雄)이란 장수였습니다. 장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나는 평소애 그대를 특별히 우대할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는가?” 그러자 그 장수가 옆드려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3년 전에 갓끈을 뜯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용서는 생명까지 바치는 덕의 힘이 있습니다.

롬 15:2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고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롬 15:7 엔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Open

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를 입었기에 나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덕을 세우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내 자존심, 내 혈기, 나의 성질이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내 속에 흐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말하며 신앙문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할 때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전생애를 바치는 신앙이 시작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주며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창조하는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ongpak@hotmail.com



개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진정하신 선과 덕의 합일체가 바로

Heart”를 가져라 ‘receiving heart’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

(1면에서 계속)

친구와의 짧은 대화 후에 나는 생산성이라는, 비록 좋은 목표표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집착이었다. 모든 사안을 효율성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집착에 빠져 있다는 경고 사인이다.

또 다른 경고 사인은 삶을 평가하는 것보다 삶을 최적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점이다. 나는 가족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한 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일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바로 그게 문제이다. 효율성을 위해 소비하는 정신 에너지의 양이 결코 주님과 가족, 교회 사랑에 쏟는 정신 에너지의 양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앉아서 책을 좀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군. 아니, 그냥 쉴 수도 있다. 그러다가도 5분만 지나면 내 마음은 새로운 일로 달려간다. 효율성에 집착하는 나의 열망은 깊이 있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능력, 심지어 인생을 즐기는 능력까지도 제한했다. 바쁜 시대에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잠시 수고함을 얻으며 밀어붙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시간 통제

시간에 관해서 잘 알려진 전도서 3:2-8(똥구, 버즈)은 삶의 다양한 계절을 보여주는 시이다. 이 구절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이 시간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심음과 수확, 전쟁과 평화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을 만들고 통제한다.

인간으로서 이런 현실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시대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싶어한다. 시간을 정복하고 통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생이라는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시간은 고사하고 내 인생 하나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도서 3:9에 나오는 “사람이 애쓰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낼 수 있겠는가?” 같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생산성은 목적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만족스러운 가내 산업은 효율성과 작업의 극대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화적 해결책을 경계해야 한다. 효율성과 우수성은 좋은 목표이지만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

보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효율적일 수 없다. 아무리 최적화해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얼마나 일찍 일어나든 상관없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가도 상관없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통제할 수 없다. 교통 정체, 직업 변경 또는 질병 등 모든 것이 다 통제 범위 밖이다. 당신과 나는 결코 초효율적 기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다.

회복된 효율성

궁극적 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나면, 내 안의 게으른 사람은 “좋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게으른 본능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한다(예: 잠언 6:6-9). 방해 요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게으름은 대단한 유혹이다. 각종 화면과 소셜 미디어는 시간 낭비를 위한 각종 기회를 제공한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하는 손가락 끝에서 그리스도를 기리는 무언가가 나올 리 없다. 생산성 집착에 대한 답은 비효율성이나 비활동성이 아니다. 효율성의 회복이다.

에베소서 5:15-17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문맥에서 볼 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바울의 지시

는 생산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효율성을 회복하려면 인간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한 삶의 최적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 목록에 따라서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결과에 따라서, 목록 속 어떤 작업은 때때로 실행 취소된 채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날짜를 계획하고 작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는 언제나 나의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지혜로운 삶이어야 한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사랑하는 나와 비슷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면 드는 걱정이 있다. 조금만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삶을 통제하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효율적일 수 없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잠은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

나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내 시간과 재능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생산성 관련 기사와 책도 계속 읽을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내 사역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겸손하게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주의 계획자가 아니며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의 계획, 심지어 효율성까지도 그의 선하신 뜻에 맡기도록 하자.

by Ben Brophy, TGC

제 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성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제 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성순복음국제교회(회장 진유철 목사)가 주최한 제 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성순복음국제교회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4

개 교단 9개 교회에서 72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한사무엘 목사(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초청됐다.

한사무엘 목사는 영어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도전하며 “예

전과 동일한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변화시키자”고 당부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은 청소년들은 “기도시간에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 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 신앙인의 삶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타민족 청소년 3명과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4명이 참석해 함께 복음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본 수련회는 나성순복음교회가 남가주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나성순복음교회가 담당해 오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만희복지재단 제10회 생활지원금 수여식



박형만 이사장이 만희복지재단 생활지원금 수여식을 마치고 생활지원금을 받은 이웃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회 만희복지재단 생활지원금 수여식이 6월 18일(화) 오전 11시 LA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에서 열렸다. 김재현

고은장로교회 목사의 기도 후에 미국 국가, 한국 국가를 제창하고 환영사에 나선 박형만 만희복지재단 이사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번째 생활지원금 수여식을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이웃사랑에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LA 총영사관 이현석 영사,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 박상수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 제이 박 피코주민회 회장, 김봉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만희 복지재단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싱글맘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연소득이 1만4,000달러 미만인 저소득 신청자들을 선정, 1인당 1,000달러씩 총 5만여 달러를 전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교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음악회

한인기독교합창단(단장 김은영, 지휘 제갈 소망) 창단 40주년 기념 음악회가 지난 15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는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가 연주되었으며 한인기독교합창단원들이 소망중창단(단장 이데보라)과 한인기독교오케스트라(악장 김정아)와 특별초대 아티스트 Soprano 김주혜, 이영주,

크리스틴 오, Mezzo Soprano 김우영, 심현정, Tenor 김성봉, 백동휘, 이규영, Baritone 채홍석(엘리아 역), 크리스 방과 함께 총 90여명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김은영 단장은 “한인기독교합창단 KCC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에 참석하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40년간 놀랍게 한인기독교합창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를 찬양한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엘리아>의 내용과 같이 힘들고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날 까지 견디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이 기념연주회 가운데 많은 분들과 함께 임으로 또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213) 503-0812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교합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동부교계 기사관

뉴저지초대교회, 오대원 목사 초청 집회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6월 30일(주일) 1-3부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 악을 대적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대원 목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개최한다. 오대원 목사는 예수전도단 창설자이며 그의 저서는 종의 마음 등이 있다.
▲ 문의: 201-767-0400

퀸즈장로교회, 전교인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 4일(목), 7월 6일(토), 7월 7일(주일) 본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전교인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영생장로교회, 2024 전가족 수양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7월 5일(금)부터 7월 7일(주일)까지 본교회에서 김근수 목사(분당 한울교회 원로목사)를 초청하여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2024 전가족 수양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뉴저지온누리교회, 2024 여름세미나

뉴저지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 목사)는 7월 12일(금)부터 7월 13일(토)까지 오후 7시30분에 한홍 목사(새로운 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12일(금) '시간의 마스터' 13일(토)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각 주제로 2024년 여름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201-461-4010

덴버지역교역자회, 2024 Fuse 연합 청소년 수련회

덴버지역교역자회(회장 이형만 목사)는 오는 8월 1일(오전 11시)부터 3일(오후 3시)까지 이종대 목사(뉴저지 찬양교회 청년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영적 100가지 (히브리서 12:1-2)'라는 주제로 2024 Fuse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Ponderosa Retreat and Conference Center (15235 S Furrow Rd, Larkspur, CO 80118)에서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6학년 올라가는 학생부터 (현 5학년) 고등학교 졸업생까지이며, 등록비는 6월 30일까지 등록시 170불이며 7월 1일부터는 \$190이다. 등록은 <https://tinyurl.com/2024FuseRegistration> 으로 하면 된다.
▲ 문의: 303-422-6950

필그림선교교회, 성인한국어학교 등록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주간 동안 성인한국어학교(18세 이상)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200불이며(조기등록은 180불), 등록은 <https://forms.gle/EYDxDWEztDMWVZYG9>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문의: goodnews@njpmc.org/ 문심은 집사 (201-381-7828)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교사 모집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는 한인 2세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가르칠 교사 및 각 학급 보조교사를 모집한다.
▲ 문의: 336-841-8439



특별활동위원회 찬양 집회 후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특별활동위원회 찬양집회 개최

“How Great is our God!”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특별활동위원회(담당 전진영 전도사) 찬양 집회가 6월 22일(토) 오후 6시 퀸즈 장로교회 본당에서 "How Great is our God"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퀸즈장로교회는 총 5개의 특별활동위원회(하람예찬, 아이노스, 하늘소리, G2G)를 구성하여 바디워십, 오케스트라, 찬양 합창단, 북 공연과 같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능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사역을 진행해 왔다.

단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익히고 연습한 내용들을 부모님들과 연을 앞두고 예배 가운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초등부 합창단(담당 이현구 목사)과 HI HEAVEN 바디워십팀(담당 김창민 목사)이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찬양을 통

해 영광 올려 드림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집회는 강사 이오스틴 전도사(초등부 담당)가 "How Great is our God(누가복음 1:32-33)"을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천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설교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모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하고, 신나는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찬양 집회 후 퀸즈장로교회 교육부 담당 차평화 목사의 인도 가운데 다함께 합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차평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제1회 항존직 사명자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1회 항존직 사명자 컨퍼런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6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사명감이 실행되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항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에 대해 회장 황규복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 사명자들이 주님의 기도에 부응하여 봉헌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민자의 삶으로 놓였던 사명을 되찾아 주님께 충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원호 장로(준비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주수 장로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기도 송운섭 장로(장로성가단 단장), 성경봉독 염영재 장로, 설교 김재열 목사, 광고 송정훈 장로, 축도 김재열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이름 없는 항존직 늙은 종 (창 24:1-4)'이라는 제목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와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인을 섬긴 종의 모습에서 충성된 청지기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이주수 장로의 찬양 인도와 황규복 장로의 기도 인도로, '감사, 회개, 사명'을 주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강의를 김재열 목사의 '실버미션의 사역가치'의 주제로 열렸다. 김 목사는 "실버 선교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 주저했던 실버들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다양한 주제로 총 13강을 진행했으며 생애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녁시간에 이용걸 목사의 '항존직 헌신자의 헌신, 2', 김남수 목사의 '헌신자 바울 신학1, 2'를 특강으로 진행했다.

(홍현숙 기자)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야외찬양회

파란색 조끼로 단합된 한 팀이 되어...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6월 19일(수) 오전 11시 알리폰드 파크에서 친목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파란색 조끼를 전달하여 모두가 동일한 옷을 입고 단합된 팀으로 일치감과 협력을 자아냈다.

회장 이규형 목사는 "참석 인원과 뜨거운 날씨를 염려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교역자연합회를 잘 섬기겠으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며 인사했다.

양은식 목사(총무)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찬양인도 김영환 전도사, 기도 김희숙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이사), 설교 라흥채 목사(후원회장), 헌금송 이경세 목사(기획위원), 헌금기도 박경자 목사

(회계) 순으로 진행됐다. 라흥채 목사는 '살아서 천국 가는 길 (살전 4:16-17)'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분의 길로만 가야 한다"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김진화 목사의 행사안내, 이준희 목사의 광고 후 신현택 목사(교협경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바비큐로 준비된 식사를 즐긴 후 장기자랑, 성경퀴즈, 년센스퀴즈 등 다양한 친목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보물찾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적힌 메모를 찾으면 상품이 수여됐다.

(홍현숙 기자)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야외찬양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청소년 할렐루아 집회 중 찬양의 시간

청소년 할렐루아대회 "Rise Up"

"부르심과 선택을 확증하라!"

뉴욕 교협 산하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가 개최하는 2024 청소년 할렐루아대회가 "Rise Up(베드로후서 1:10-11)"라는 주제로 6월 21일(금), 22일(토)에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금요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하이브리드로 진행됐다.

Remnant 교회(담임 Joseph Chung 목사)의 Liberatone팀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허남준 전도사(신광교회 교육부 담당)가 대표기도를 했다. 올해 집회의 강사인 Ron Walborn 박사는 첫날 집회에

서 베드로후서 1:10-11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증하라(Confirm Your Calling and Election)"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Walborn 박사는 "여러분들은 폴타임으로 목회사역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세대"라며 청소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사역자들은 앞으로 나와 헌신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를 했으며, 뉴욕 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장혜순 사모, <함께 가는 여정> 출판

20년 파킨슨병을 믿음으로 극복하다

뉴욕영락교회 한세원 원로목사 부인 장혜순 사모가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콤팩트출판사에서 냈다. <심플라이프>(2005년) <마음의 습관>(2007년) <영혼의 소통>(2011년)에 이은 4번째 저서이다.

장혜순 사모 책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감동의 부록이 있다. 장혜순 사모가 2005년 자전적 에세이를 담아 출판한 <심플라이프>에 그 힌트가 담겨 있다. "나의 증상이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들던 그 날의 암담함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아니, 하필이면 내가? 무엇보다도 남편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가족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았다. 나는 나

야마만 했다. 이제야말로 내안에 있는 믿음을 일구어 살아야 할 인생의 때가 되었구나."

장혜순 사모는 20여년을 파킨슨 증후군으로 투병을 해 왔다. 지금의 육체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장 사모는 파킨슨 증후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을 떠나 마음과 손이 더 가는 친구로 삼고, 현재 아들이 있는 메릴랜드에서 남편 한세원 목사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함께 가는 여정>은 1부 말씀 묵상, 2부 나의 인생 울타리, 3부 지인들이 보내온 글, 4부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tz(Th.D)

1(토) 오후 한국교회와 목회자 살리기 연합성회 및 나눔행사
장소 : 서울강남성교회(이사장 강사영 목사) 010-8331-3431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정규 목사) 성역3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2(주일) 오전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2(주일) 밤 출국
3(월) 필리핀(Philippines) 문명 달라우교회 원주민 부흥성회
4(화) 필리핀(Philippines) 조리아교회 원주민 목회자부흥성회
5(수) 필리핀(Philippines) 개인파교회 원주민 제직세미나
6(목) 필리핀(Philippines) 썬밸루칸 원주민 야외연합부흥성회
7(금) 필리핀(Philippines) 라구나지역 원주민 교인가정방문 기도회
8(토) 새벽 귀국

9(주)~12(수) 저녁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정규 목사) 010-5339-6437 30주년기념 축복대성회
세계비전부흥사협의회 정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오사야 여성대표회장 취임) 010-9082-9030
12(수) 오후 대구 열방교회(배성은 목사) 010-8564-2696
주최 : 그루터기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13(목) 오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13(목) 오후 첫사랑 회복운동 선교센터(원장 김인나 목사)
주최 : 일파와오메가 열방부흥사회(대표회장 백사랑 목사) 010-2272-9119
13(주)~14(금) 낮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14(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영 목사) 010-8331-3431
17(월) 오후 한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Good TV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홍희 목사) 010-7291-0291
(사지선생(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나라사랑기도대성회
장소 : 구리성민중앙교회
19(수)~21(금) Visit To The Mission Field Association MT
22(토) 오후 서울 거성교회(노원수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장로 권사 임직예배)02-400-8580
23(주) 저녁 서울 열방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4(월) 저녁 담양 새생명기도원
25(화)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관용 목사) 010-2391-3004
26(수) 저녁 한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함금전 목사) 010-7754-8291
27(목) 오후 부산 아름다운 기도원(원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28(금) 저녁 서울 강남순교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8(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영 목사) 010-8331-3431
30(주) 오후 서울 은누리한중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목회자 부흥사 세미나
30(주) 오후 필리핀 켈라바시 벨렐찬양교회(허용철 선교사)찬양팀팀 남서울중앙교회 방문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0(7동) 4F Fax. 02)2401-7770



한세원 원로 목사, 장혜순 사모

2024 밀알 사랑의캠프, '뿌리' 주제로 성황리에 열려

"뿌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

'2024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지난 6월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밀알 가족들과 더불어 ANC온누리교회 GM과 청년 트랙팀, 샌디에고, 한국, 멕시코 등에서 약 350여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참석해 CSU Long Beach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Roots('뿌리' 골 2:6-7)"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세계밀알연합 이재서 총재는 "지난 45년간 밀알 사역 안에 매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밀알 사랑의 캠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2024 사랑의캠프 참가자들

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랑과 희생의 열매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다"며 "이번 캠프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랑의캠프 첫날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갈보리선교회 담임)가 '승리자의 태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제1회 선교찬양제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제 3차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제1회 선교찬양제

"상한심령들이 찬양으로 위로받고 평강누리는 시간되길"

남가주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제1회 선교찬양제가 2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환경환 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은 "지난 1992년 창단된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제1회 선교찬양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다"라며 "복음사역을 위한 선교와 그늘진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며 찬양으로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교찬

양제는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팀(지휘 장진영), 보치엘레스티 어린이 합창단(단장 우혜진, 지휘 안주영), 벨리한인여성매스터코랄(단장 김광숙, 지휘 오정근), CTS 아메리카미션과이어(단장 김행걸, 지휘 김명옥), 오렌지키션과이어(단장 박재환, 지휘 강민석), 나성영락교회 3부 찬양대(지휘 정영관),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장진영)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제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빌리뮤직아카데미 후원음악회에서 공연을 마치고 김미경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주빌리뮤직아카데미 후원음악회

주빌리뮤직아카데미(대표 김미경) 후원음악회가 22일(토) 오후 5시 온마음교회(담임 김중환 목사)에서 '뮤지컬 하일라이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미경 대표는 "작년 9월8일 중앙일보 아트홀에서 첫 번째 후원음악회를 마친 후 청소년들을 위한 성악레슨을 두 학기 진행했고 세 번째 학기를 앞두고 있다. 학기를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음을 전혀 잡지 못했던 학생들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높은음을 잡지도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고 매주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에게 행복과 즐거움으로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노래라는 친구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기도 한다"고 말하고 "오늘 연주회를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미경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에스더, 이지은,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백동휘, 오위영, 최원현이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제 3차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7.22(월)-8.14(수)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하는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가 올해 다시 실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는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오는 7월22일(월)부터 8월14일(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에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갖게 된다. 이어 기도회가 마쳐진 다음날인 8월15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한 기도회를 겸한 모임이 24일(월) 오전 10시30분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창남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사회와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 모임은 이창남 목사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환영사를 했다. 심상은 목사는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2년 전인 2022년에 시작했다"며 "당시 팬데믹이라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주셨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섬기는 21명의 젊은 목사님들을 선정했다. 1차 기도회는 팬데믹을 마치고

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

둘째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팅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으며 실비치 해변에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Gallery Deco, Caricature 그리기를 통해 각자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기도 했고, 저녁엔 신나는 댄스파티를 통해 이번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마지막 날인 22일엔 '뿌리'라는 이번 사랑의캠프 주제로 걸맞게 지난 45년 동안의 밀알선교단 사역을 담은 사진들을 감상하며 밀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졌고, 사랑의교실 브랜드별 공연 발표 후 세계밀알연합 이재서 총재가 인도하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4년 사랑의캠프가 모두 막을 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 Digital 창작교실 1기 수강안내

'AI활용, 단숨에 똑딱! 책 쓰기' 저자 명진(이성숙)작가와 함께 하는 미주 디지털 창작교실 1기생을 모집한다. 본 창작교실에서는 AI활용하여 실용문 쓰기, 문학작 글쓰기, 글감포착하기, 문체와 스타일 개발, 글의 구조설계, 다양한 시제 사용, 좋은 문장 쓰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1기 공동 문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개강은 2024년 9월 3일(화), 6개월간 오후 8시-9시30분까지 Zoom으로 진행되며 두 주는 강의, 두 주는 개인적으로 글 리뷰를 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글 배우기가 아닌 중국어 책 한권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 마감일은 8월 17일. 수강료는 3개월 450불.

▲ 문의: (213)820-3850, (562)217-7080 또는 essaycien@gmail.com

이상명 박사 출판기념회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저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신학> 출판기념회가 28일(금) 오후 3시 미주장신대학교 멀티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줌으로도 함께 열린다. 줌아이디는 829 947 6668이다.

▲ 문의: (562)926-1023

캠코랄 나라사랑 음악회

캠코랄(단장 겸 지휘자 이수정)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9일(토) 오후 7시 칼스테이트 풀러턴 팜 콘서트 홀(800 N. State College Blvd, Fullerton)에서 나라 사랑 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캠코랄의 제16회 정기연주회로 열리게 되며 46명의 남녀 단원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 문의: (714)723-2685

이상열 장로 초청 찬양간증 전도집회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교회창립 20주년 기념 이상열 장로 초청 찬양간증 전도집회를 오는 7월14일(주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

▲ 문의: (213)365-8880

자마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자마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가 7월1일(월)부터 5일(금)까지 텍사스 린데일에 위치한 자마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다. 9학년 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등록비는 \$599(청소년 근교자는 \$299)이다.

▲ 문의: (903)804-4016



6.25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식 열려

6.25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식이 22일(토) 오전 11시 새한교회(담임 노영호 목사)에서 6.25기념사업회, 6.25참전유공자회, 육군협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최만규 육군협회 회장과 노영호 박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노영호 목사가 개회기도 했으며 이재학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재학 회장은 "74년 전 한국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기억되고

후세에 전해야 할 산 역사"라고 전했다. 미육군협회 LA지부 피트 세이츠 지부장, LA한인상공회의소 김경현 수석부회장이 기념사를, 국가원로회의 김창로 상임의장의 감사인사에 이어 학생대표 감사편지 낭독, 감사장 전달, 바이올린 연주, 발레 공연 등도 펼쳐졌다. 이날 기념식은 샘 신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들 모두 오찬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보나뮤직 주최 소프라노 김민지 리사이틀 열려

소형 한인교회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보나뮤직(대표 이해자)이 주최한 한국 최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김민지 리사이틀이 23일(주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리사이틀은 소형 한인 교회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로 열렸다. 이해자 대표는 "한국에서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김민지 교수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오늘 리사이틀을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며 행복한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민지 교수는 이번 자선음악회에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카치니 '아베마리아',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와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 '우리 어머니', 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 정서 깊은 한국 가곡, 그리고 대중적인 성악곡 등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반주는 라크마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정희 씨가 맡았으며, LA 체리티 콰이어와 테너 오위영씨가 특별 출연했다. 김민지 교수는 선화예술중·고를 거쳐 한국 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며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및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의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해 대학 강의와 전문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보나뮤직 주최 소프라노 김민지 리사이틀에서 김민지 소프라노와 오위영 테너가 듀엣으로 공연하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D-31' ...한국교회, 팔 걷어붙인다 선교팀 파송하고 기도응원단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33회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한 달 앞두고 한국교회가 선수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세계에서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은 1924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다. 한국올림픽선교회(대표회장 이장균 목사)는 올림픽에 앞서 '2024 파리 올림픽 스포츠선교단'을 꾸렸다. 모든 체육 현장이 성전이 되고, 모든 체육인이 예배자가 되도록 초교파적으로

국내의 스포츠 현장을 선교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인과 중·고등학생, 대학생, 실업 선수, 프로선수들까지 아우른다. 선교회는 "대회 개막일(7월 26일)에 나흘 앞선 7월 22일부터 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11일까지 국가대표 전천선수촌 기독교신우회 소속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들의 출전경기장에 함께 하며 응원과 격려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이사

장(총재) 이영훈 목사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선교팀을 구성해 파송할 예정이다. 선교팀엔 목회자(이장균 김안순 홍익준 신상윤 황승택 목사)와 순복음강남교회 실업인 회장단(박재우 장로, 강정희 김순자 하연권사)이 함께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청장년(안웅 송송이 김동현 박지은) 등 13명이 구성돼 있다. 선교팀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에 준비된 명상실을 활용해 선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주 2회 선수촌에서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전을 앞두고 다음 달 3일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4파리올림픽 파송 및 국가대표선수 필승기원예배'가 오후 7시30분부터 두시간 동안 드려질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라며 다음 달 12일 금요일 예배에 "2024파리올림픽 필승기원예배"를 드린다.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표회장인 이장균 목사가 '상 받도록 달음질하라' (고전 9:24-27)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며 체육교구에 소속한 선수들과 한국올림픽선교회 소속선수 등이 초청되는 예배의 자리다.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하나님 없이 일상 표현할 수 없어"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계속 드러내고

축구는 11명이 하나를 이루는 팀 스포츠다. 그중에서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묵직한 존재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이도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재성(32) 선수의 이야기도. 2014년 전북 현대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재성은 2018년 여름 독일 무대로 발을 넓혔다. 흡수타인 길에서 유럽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21년 현재 소속팀 마인츠로 이적해 주전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 내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이달 초 A매치 소집에서는 새롭게 부주장으로 선임됐다. 이재성은 "프로선수가 된 이후 팀에서 직책을 맡은 건 처음"이라며 "어느 소집 때보다 책임감이 막중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성은 축구 팬 사이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의면했던 시절이 있었다. 무신론자였던 그의 주변에는 기도도 중보했던 가족과 동료 선수가 있었다. 둘째 형수와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둘째 형수님은 형과 연애 시절부터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기도해주신 분이예요. 동료였던 김신욱 선수는 이재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이재성에게 복음을 전한 건 2018년 어느 날이었다. 이 기점으로 이재성의 삶은 180도 변화했다. 이재성은 독일에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마인츠의 한인교회에 다니는 그는 경기



6·25전쟁 74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군목출신 목회자들의 외침 한국군목회, '6·25전쟁 제74주년 상기에배' 드려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해 군종목사(군목) 출신 목회자들이 기도의 손을 모았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도발과 북·러조약 등 남북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남북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군목회(이사장 박봉상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군목회가 주관한

'6·25 한국전쟁 제74주년 상기에배'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군중앙교회(김영석 목사)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현역을 비롯해 육·해·공군 군목 출신 목회자, 교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육군 군종감 출신인 이원호 목사가 '6·25와 하나님의 섭리'(삼상 17:47)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이목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세상눈으로 살펴보면 다

윗이 무척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되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며 담대하며 강한 모습을 보인다"며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로 위협적인 도발을 펼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한국을 세우셨단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몰장병 유가족을 위해' '군 선교를 위해'라는 기도제목 아래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또 '6·25 노래'를 제창하는 특별 순서도 진행됐다.

박봉상 한국군목회 이사장은 "우리 예비역 군목들은 6·25 한국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젊음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군대의 목회와 신앙전력화를 위해 힘을 다한 우리 예비역 군목들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한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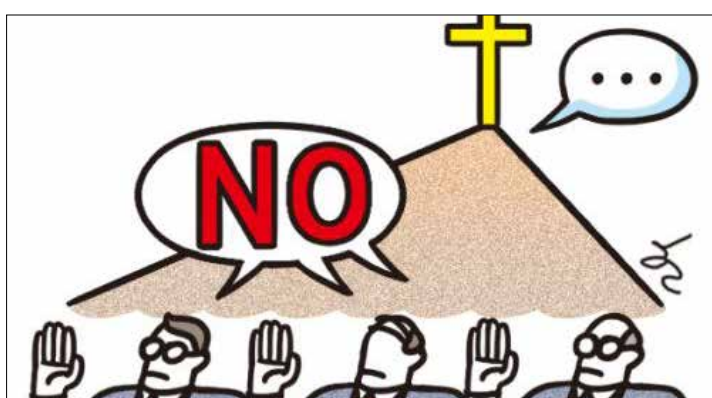
"30여년 이주민 사역... 진정한 '영혼 터치' 부족, 대대적 튜닝 절실"

"한국교회는 지난 30여년간 국내 이주민 사역을 돌아보며 기타를 조율하듯(튜닝) 사역을 새롭게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동 다하나국제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난 30여년간 펼친 이주민 사역을 반성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국제이주자 선교포럼(IFMM·이사장 유종막 목사)이 24일 서울 동작구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이주민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

한 제17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에서다. 90여명의 이주민 사역자가 참석한 포럼은 이주민 사역의 변화와 선교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목사는 이주민 사역의 질적 쇠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소를 꼽았다. 1990년대 교회가 이주민들에게 제공한 역할이 국가와 제도에 이양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정작 알맞은 역할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게 이목사의 설명

이다. 또 "자립적인 외국인 공동체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에게 교회의 필요가 이전보다 축소됐다. 이주민 신앙 리더 양성에 실패한 것도 뼈아픈 사실"이라며 "이와 함께 젊은 이주민 사역자가 적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주민 사역자의 나이가 고령화됐다. 사역자의 영성이 부족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이다. 이목사는 이주민 사역자들에게 창조적 목양을 당부하며 사역자로서 소명을 붙잡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접한 뒤 회심의 과정을 통해 변화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이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발제와 사례를 반추해 한국교회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김목사는 다문화에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지원, 이주민 사역의 리더십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이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종교인 2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이지만... 불교 신자는 느는데 크리스천은 제자리걸음

국내 종교인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정체돼 있으나 불교 신자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여전했으며, 한국인 대다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최근 발표한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제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한국인은 36.3%였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비율(44.9%)과 비교하면 8년 사이에 종교인 비율이 8.6%포인트나 줄어든 셈이다.

조사는 지난달 13~17일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인 비율은 개신교(49.3%), 불교(30.6%), 천주교(18.7%) 순이었다. 종교인 2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이라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비율은 2년 전, 4년 전 벌인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과 2022년 조사에서도 개신교인 비율은 각각 50.2%, 50.1%였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크리스천의 비율이 사실상 답한 비율(44.9%)과 비교하면 8년 사이에 종교인 비율이 8.6%포인트나 줄어든 점이다. 해당 기관이 2022년 벌인

가 없는 날이면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청년부예배를 드린다. 평일에는 교회 형제자매와 보드게임을 하거나 맛집 탐방을 한다는 그는 영락없는 청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프로선수인 그에게 축구는 꿈과 삶이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10개월간 진행되는 시즌 동안 팀 성과와 개인 성적, 주전 경쟁 등으로 단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에게 멘탈관리는 필수인데 멘탈관리 비결로 신앙을 꼽았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다시 나아가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재성은 오는 8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음 시즌도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빌 수 있을지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매 시즌 목표는 같아요. 건강한 몸으로 모든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다음 시즌도 부상 없이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에겐 하나의 목표가 더 있다. "저를 통해 많은 분이 행복할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조사에서 종교인 중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답한 비율은 24.7%였으나 올해는 30.6%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 종교인 가운데 불교를 믿는 비율은 18.2%에서 25.0%로 늘었으며, 50대에서는 22.4%에서 36.7%로 급증했다.

무종교인이 관심을 가진 종교 역시 불교가 첫손에 꼽혔다. 믿을 의향이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불교라고 답한 비율은 62.0%로 개신교(12.4%)보다 5배나 많았다. 이 같은 불교의 인기는 최근 슬러북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벌여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종교인 이미지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이들 종교 신자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각각 '절제하는'(23.3%) '따뜻한'(20.9%)이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싶은'(25.0%), '이중적인'(21.4%), '사기꾼 같은'(17.5%)처럼 부정적 키워드가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예정합신 소속 선교사 한자리 모인 'HIS 선교사대회' "미래 선교 향한 다짐·헌신을 새롭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 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현장 사역을 공유하며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HIS·이사장 이재현 목사)가 주최한

'2024 HIS 선교사대회'가 25일 부산 강서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막했다(사진). '땅끝까지, 함께 증인으로'를 주제로 한 대회엔 HIS 소속 31개국 선교사 260여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선교사들은 대회 기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예정합신의 선교 정신을 공유한다. 또 변화하는 세계선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선교가 나아가갈 방향 등을 모색한다.

행사는 첫날 한철호 미션파트너스 대표의 '세계선교의 변화와 도전'에 관한 강연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김명호 대림교회 목사의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조봉희 지구총교회 목사의 '국내 선교 이슈와 새로운 도전', 이재현 은누리교회 목사의 '한국교회 변화와 세계선교 이슈'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김병진 HIS 회장은 "세계선교의 변화 속에서 합신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어떻게 더 협력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갈 것인지 점검할 때"라며 "변화하는 세계선교 현황과 도전을 이해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 열정을 회복하며, 미래 선교를 향한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ission 선교의 창 (24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바울의 5가지 선교 원리

“예수가 유일자라면 바울은 제1자이다.” 이 말은 신학계에서 종종 회자(膾炙)되곤 한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라면 바울은 사람중 중 님버원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다음으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성경학자인 마이어(F.B. Meyer)는 “소아시아에서 빌립보까지 사도바울을 태운 배는 온 유럽을 싣는 것보다 무거웠다.”라고 칭송했을까? 아무튼 바울의 선교적 업적과 그 위대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선교원리를 사역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선교 지역

최초이자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주로 문화가 높은 거점 도시에서 선교를 했다. 그중에서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와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시했다. 그는 왜 낮은 문화권 방향이 아닌 역문화적 노선으로 동선했는지? PAX ROMANA,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이다. 그 곳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모든 정보가 취합되었고 여러 족속들이 왕래하는 곳이

었다. 이로서 그는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온 몸으로 퍼지듯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택함으로써 지구촌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된 것이다. 만일 그가 감상적인 선교시각에서 아프리카 오지나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로 갔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라

졌을 것이다. 나아가 바울의 선교지 선택은 들불작전을 연상케 한다. 그는 1,2,3차 전도여행에서 보듯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넓은 들판의 잡목을 속히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곳으로부터 점진적인 발화가 아니라 동서남북 여기저기에 불꽃을 점화하는 것이다.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나아갔다. 그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열방에 복음의 들불을 놓은 것이다. 참으로 탁월한 혜안이 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지역을 선택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인도하심

을 강구해야 한다.

선교 내용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제자양육이 핵심이었다. 그가 살았던 때의 역사적 상황은 매우 암울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의료, 교육환경,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등 제반 사회적 문제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시대적 쟁점 앞에 그는 많은 사역적 고민을 했을 것이다. 다혈질적인 그였기에 열혈당원처럼 유대 국가 독립이나 사회정의의 위해 투사로서 몸을 불살할 수도 있었다. 고아원이나 병원을 지어 공활사역을 할 수도 있었다. 선교센터나 큰 회당을 짓기 위해 올인했을 수도 있었

었다. 이 사역은 끝없는 인내와 아픔을 수반한다. 고로 진정한 멘토(Mentor)는 스승이요, 부모요, 친구라는 3각 구도로 사람을 돕는 자이다. 영적 아들로 디모데를 입양한 바울이 그러했다. 한인 세계 선교 우리는 정말 프로젝트나 선교센터, 교회 건물 들보다 영혼 구원과 제자양육에 집중하고 있는가?

선교 재정

바울은 Tent Maker로서 자립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였다. 그는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할 때도 물질적으로 도왔다. 그는 오히려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그는 가이오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금(Self-support) 생활을 하였다. 익히 아는 바 물질은 잘못하면 일만 막의 뿌

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교사가 불의의 사건 사고로 유고시될 경우 선교사역은 단절될 수도 있다. 밑물이 백사장의 모래성을 지우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피선교지민에게 자립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선교 방법

바울은 팀 사역을 하였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지 속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출발했다. 1차 전도여행 후 자기를 모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협력을 구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과 기도와 서신 그리고 재방문 등으로 팀 재조직을 이루었다. 세상의 전쟁은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 팀 작전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것은 시작부터 시

선교 위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나아가 그는 때가 되면 과감히 위임해주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 단계는 4P 이론인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 참가(Participant)이다.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한 곳에 머무르고 뿔도록 정착하여 자기 왕국을 만들기 쉽다. 피선교지민들을 독립적 지도자로 세우기보다 종신토록 자기를 의존하며 돕는 역할만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러므로 사역지에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은 금물이다. 시작부터 주님의 킹덤을 생각하며 출구전략 가운데 사역에 임해야 한다. 그 방편 중 하나는 때가 되면 선교사는 과감히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주는 것이다. 그렇지않는 한 현지 사역자는 성장할 수가 없다.

맺는 말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첫째로 각 나라와 족속의 양종지를 갔다. 둘째로 오직 창조적 소수를 택해 제자양육에 집중했다. 셋째로 재정적으로 자립정신을 고양시켰다. 넷째로 철저히 팀 선교를 하였다. 다섯째로 사역을 과감히 위임했다. 결국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대 공동체의 사상과 틀을 깨고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거쳐 열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각변동이 도래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 바울의 선교 노선을 잘 이해하고 사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수록 근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4차 산업혁명으로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선교환경은 안, 밖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제시된 사역 원리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적 요구보다 철저히 영혼구원과 일꾼양성이라는 단일목적 안에 사역을 국한시켰다. 그는 영 안으로 세상을 조망했고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바울의 중심 사역은 예수의 12제자 훈련처럼 대중 보다는 소수의 사람을 뽑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이었다(골 1:28-29). 바울은 동만자를 위해 선생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갈 4:19; 딤후 1:2; 고전 4:15).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육자가 동반자를 위해 믿음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야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

리가 되며 현지인의 눈을 어둡게 한다. 특히 일반 회사처럼 계약에 따라 사례비를 주고 일하게 하는 경우는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재물로 인한 주종 관계적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악이다. 물론 열약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건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정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선교지 민들이 선교의 주체인 성령의 통치 아래서 자립적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렇지 않을 때 현지인은 성장하지 못하며 종속적이게 된다. 나아가 선교의 재생산이나 부흥을 기

공간을 뛰어 넘어왔다. 더욱이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개념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실시간 세계의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하루 안에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에서 한 유학생을 전도하면 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 사람이 자기 본국에 있다. 따라서 선교지의 개념도 이제는 지역에서 사람중심으로 빠른 인식전환이 되어야 한다. 지구촌이 하나의 글로벌한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연합적인 팀 사역이 필수적이다. 한 사람의 백 보보다 백 사람의 한 보가 낫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33강 아비멜렉, 입다, 삼손 그리고 레위인 (1) (사사기 9-21장)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곤 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쟁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광야에서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을 건너기 때에도, 요단을 건너기 가나안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에 태양을 멈추셨고(수 10:12-14) 사사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역사 하셨습니다(사 5:20-21).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전염병'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몰살시키고 다 몰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도 없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흔적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도록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으로는 모두 진멸하리(수 10:16-18)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십니다(사 2:21-3:4).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인'이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신 31:20,21/사 3:5,6).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전쟁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속히 가나안인이 되어 가나안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에서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은 부족한 인간 사사들과 이 땅의 사람 왕을 통해 임시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곳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하리라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여 범죄함으로 매번 놀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진행하고 계

신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것이 나이나

기드온이 죽고 그의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여룹 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사 9:2)는 말로 세겜 성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됩니다(사 9:6).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합니다(사 9:7-21). 그리고 3년이 흐릅니다(사 9:22). 이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고(사 9:23) 서로 싸우고 난리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세상에서 악한 행위로 3년 왕하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칼에 찔려 죽습니다(사 9:53,54). 성경은 세겜의 악행도 아비멜렉의 악행도 다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합니다(사 9:56,57).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해서라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들도 똑같았더라(1)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사건 이후 성경은 두 명의 사사를 사역 기록없이 삶의 단편만을 말합니다. 사사들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23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었고(사 10:1,2)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였는데 그는 어린 나귀 30을 탄 아들이 30명이었고 30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30명이었으니 딸까지 하면 몇명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사사였지만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논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18년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사 10:6-9)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논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사 10:11-14)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회개하라'(사 10:15,16)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상황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의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사 10:16)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사 2:12,13, 10:6,10,13)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출 32:1-6)를 시작으로 '놋뿌'(민 21:4-9)를 품더니 '기드온'(사 8:22)과 '아비멜렉'(사 9:6)을 지나 하나님이 사사로 쓰실 '입다'에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사 11:6)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누가되었든 그들에게 '승리'를 주면되고 '풍요'를 주

면 되는 것입니다(사 10:18).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는 말에 결국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사 10:17-11:11). 입다는 암논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구약 신명기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사 11:14-27). 이 말은 입다도 알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입다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은 암논과 전쟁을 하게되고 입다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사사 기드온과 같이(사 6:34-40)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입니다(사 11:29-31). 전쟁은 하나님이 대적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사 11:32)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사 11:33).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죽여 했고(사 11:34-40) 기드온 때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는데 기드온이 부드럽게 넘어갔다면(사 8:1-3)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사 12:1-6). 그리고 사사로 6년을 지내고 입다도 죽습니다(사 12:7).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자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구원하심으로(사 2:18) 대표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정한 대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소이다 (시 114:1-8) 찬 85장

본 시편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구원 목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과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2)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발"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 구원에는 경외와 기쁨이 나타나

야 합니다. 경외심이 생길 때 죄를 멀리하게 되며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심이 없다면 타락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치료도 잘 안 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기 때문입니다. (말4:2) 죄로부터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화 그리스도인이 가질 도움과 방패 (시 115:1-18) 찬 542장

신자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얻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뿐이라는 뜨거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1-8) 왜냐? 그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신 그에게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1-3)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무력하게 됩니다. (8) 둘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

다. (9-18) 이스라엘(9), 아론의 집(10), 경외하는 자들(11)은 오직 여호와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만이 방패이며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을 의지할 때 집이 변창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 은혜의 보상 (시 117:1-16) 찬 258장

신자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첫째, 기도 응답하시는 분께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음성 들으셨기에 내가 사랑한다고 했고 사랑의 줄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으며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4-11절에는 하나님의 의, 자비, 은혜를 기억하며 결심합니다. 9절에

는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감사제와 서원을 드림으로 보답합니다. 주님에 대한 찬된 헌신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교감을 갖습니다. 평생받은 은혜, 일년간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 와 결심과 보답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 복된 길 (시 119:1-24) 찬 411장

시편 19편, 29편과 함께 119편은 말씀 예찬 시로 신자 생활의 체험적 성경관을 보여줍니다. 1-28절까지 시인은 복 있는 자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1-4) 여호와의 법에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신자의 가장 복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히4:12-13) 둘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결심하는 자입니다. (5-8) 시

인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배울때 감사한다고 했으며 자기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5) 셋째,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24) 청년인 그는 범죄 예방으로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주의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따라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시 119:41-56) 찬 200장

자유케하는 율법(41-48)을 사랑하는 그는 주의 인자와 진리가 임하기를 구하며 진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말씀 사랑의 정도와 결과는 어떠한가요? 첫째, 그 정도 지식적으로 말씀을 나의 소망과 위로의 원천으로 삼았고 감정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분위기 속에 거했으며, 의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사랑

했습니다. 둘째, 그 결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는 영적 자유입니다. (45-46)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생의 체험입니다. 영적 다운 상태에서 다시 살아가는 일은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할 때 되는 사건입니다.

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 (시 119:57-72) 찬 423장

본문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유익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나요? 첫째, 전심으로 사모한 증거가 있습니다. (58) 그는 주의 법을 지키는 일에 신속하였으며 (60) 은밀한 중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했으며 (62)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63) 주의 말씀만이 전심으로 사모할 대상임을 확신하여 착념하며 존 낙스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사모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말씀을 잘 배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67, 71절에는 고난을 주신 목적이 말씀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잔치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워서 고난 속에서도 귀한 은혜와 진리의 보화를 캐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60)

오 신실하신 주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하고 싶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참 애매합니다.

르네 비오트(Rene Biot, 1889-1966) 라는 의사가 창설한 "리옹 의학, 철학, 생물학 연구회"에서 지난 1955년, 강연에 초청되었던 독일의 철학자요 교육자인 커트 한(Kurt Hahn, 1886-1974) 교수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의 역설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역설에 대한 한 예입니다. "인간은 그의 기술적 성공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기술적 목표는 성공을 더욱 확실히 하자는 것이지만 기술의 승리는 인간의 파멸 즉 최고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커트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문명이 주는 많은 이기 속에 점점 더 그것에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철학자 커트 한이 제시했던 말에 크게 동감이 됩니다. 결국, 성공이 실패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깊은 내면을 보면 이것은 성공도 되고 동시에 실패도 되는 완성입니다.

이처럼 외면적 성공이 내면적 실패로 비출 수 있어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기란 참 애매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자들 보면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자신의 삶 자체는 성공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공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로운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고 정신의학자요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 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을 깊이 신뢰하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토마스 오베디아 치솔름(Thomas Obediah Chisholm, 1866-1960) 이 작시한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 는 이러한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치솔름은 캔터키의 작은 마을 프랭클린 출신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여섯 살에 교사가 되었고, 1893년 캔터키주의 월모어에 있는 애즈베리 대학의 5대 총장인 헨리 클레이 모리슨(Henry Clay Morrison, 1857-1942)의 사역을 통해 치솔름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지성과 야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스물한 살에는 고향 주간

신문인 프랭클린 애드보케이트의 부편집장이 되었고 이후 신학을 하여 1903년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고 캔터키주 스크즈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1909년까지 한 팀의 짧은 임기만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솔름 목사는 찬송시를 즐겨 쓰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생애 동안 1200편이 넘는 시를 써서 그중 800편이 출판되었습니다. 1923년 치솔름은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를 써서 무디 성경 연구소의 음악가이자 시카고에 있는 호프 출판사의 편집자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H. 런안(Rev. William H. Runyan, 1870-1957)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런안은 이 찬송시에 애착을 갖고 말하기를 "이 특별한 시는 너무나 호소력이 있어서 나는 이 곡이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라며 깊은 영감을 더해 이 시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삶이 힘들 때도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에 대한 증거인 "오 신실하신 주"는 인생에서 오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치솔름이 이 찬송을 기초로 한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직후 당시 유다의 운명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때 쓴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니이다." (애3:22)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가 쓴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 (Toward a more perfect faith)"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사용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것으로 거래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함을 자신의 영혼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 토시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성공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이때 진심으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마음에 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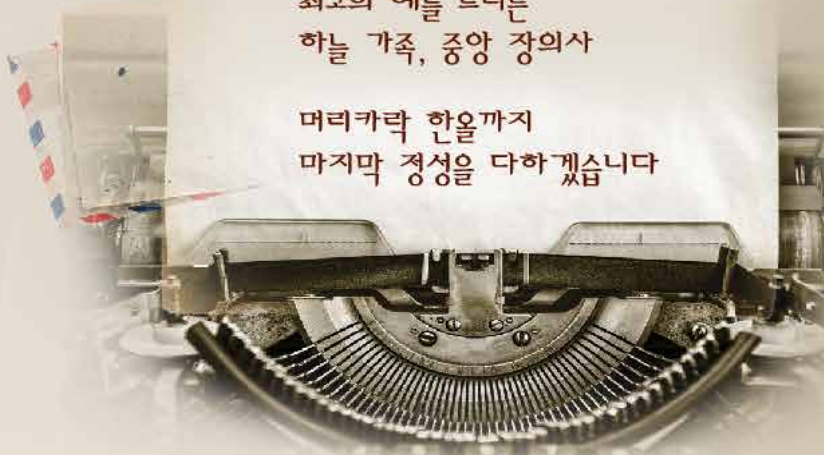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필리핀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Maya와 Ava는 Brent International School Manila에서 2학년을 마쳤습니다.

3학년 동안 Maya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두 개의 Brent Pride Award도 수상했습니다.

Maya의 선생님은 학교 마지막 주에 학급을 위한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Ava에게 1학년은 도전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세고, 보스처럼 남을 지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던 아가씨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우리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옥시덴탈 민도로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 일꾼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하는 열매 맺는 복음 사역



을 위해 더 많은 "넓은 문"을 계속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열방선교학교 후원을 위해 한국에 있습니다.

다. James의 종합적인 건강 검진 중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에 비정상적인 성장(덩어리)인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 파트너십(장기 월간 후원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 파트너십(장기 월간 후원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James의 수술 일정과 건강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우리의 지원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 파트너십(장기 월간 후원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 파트너십(장기 월간 후원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카리아 종족
▲ 인구 약 240,240명
▲ 종교 힌두교 63.51%, 이슬람교 외 4.87%, 복음화를 31.62%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인도 중서부에 살며 인구의 5%가 색맹이라고 알려져 있다.

- ▲ 기도제목 1. 카리아족이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상숭배와 카스트로부터 자유하도록 2. 복음을 통해 알콜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추천도서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신앙 에세이

언어, 신앙의 품격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 명령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해 온 것은 사람이 혀였고, 요한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구해 온 것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가장 귀한 혀가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써 천냥 빛을 갖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써 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호모 로쿠엔스, Homo Loquens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인생의 1/5을 말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는 말을 책으로 묶으면 평균 50페이지, 1년에 하는 말을 묶으면 적어도 100권의 책이 나올 것입니다. 잠언 18:21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언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의 능력은 말이 단순한 의사전달의 수단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30초의 말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오랜 세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들어본 가장 격려가 되는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한 성도님이 격려하면서 들려준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세요. 우리 교회

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거대한 비전, 그것 이루어 드리기만 해도 최고의 교회가

비에서 교인들과 인사할 때 한 성도님이 가까이 와서 손을 잡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섬김에 죄송해지는 목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던 말인지, 목회 가운데 험겨운 순간이

오면 그 파스한 목소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17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언어도 자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향해 정중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내 말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가? 말은 곧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 품격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향기를 담아내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될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을 파스하게 만들어주는 또 한 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해 송구영신예배를 마치고 로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만족해요." 늘 부족한

오면 그 파스한 목소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17에서

베드로 진서 24

새벽기도회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오늘따라 그 분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꼭 새벽기도회 때문만은 아닌데 오늘의 교회를 보며 느낀 마음 때문이라. 토론도의 초기는 보수 교단이 발을 내리기 어려웠다. 그때 그 어른은 복음주의 보수 교단을 자처하시며 당시 이민 사회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시도하셨으니 새벽기도회였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 중 새벽기도회가 너무 힘이 들어 누가 새벽기도회를 만들었지 하셨다는데.



이 어른은 이민 초창기에 늘 해오시던 대로 당회에서 의논

하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셨다. 교회에서 광고하고 새벽기

도회를 했는데 성도는 딱 한 분이 나오셨으니 바로 사모님

이셨다. 사모님을 앞에 두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신 지 1년이 되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속이 상하기도하시고 안타까우셨던 목사님이 당회에 장로님들마저 나오시지 않는다면 새벽기도회를 없애자고 하셨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하셨다. 자신들이 나오지는 않아도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당회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

들은 협조하거나 함께 하지 못해도 교회의 체면 명목상 하자 말자 없애자 없애지는 말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면서 정작 거기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revpeterk@hotmail.com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